



## 질의응답

Q

A

Q

저는 모돈 7두를 사육하고 있는 부업양돈가입니다. 양돈에 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어서 전근대적인 사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돼지를 50일 정도에 이유시키고 있습니다. 그보다 일찍 이유시키면 불안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께 얘기하니, 너무 늦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자세한 조기이유 방법과 일령, 그에 따른 문제점을 모르고 있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같은 소규모 사육농가에서도 조기이유가 가능한지, 조기이유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경북 월성군 양남면 김현상〉

A

앞으로 계속 양돈을 하시려면 남보다 빠른 정보와 새로운 사양기술을 습득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미래의 양돈산업은 생산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새끼돼지의 이유일령은 50일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돈의 비유량과 건강상태, 사양관리 방법 등에 따라 분만후 30일 또는, 그보다도 더 일찍 이유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양기술의 발전과 사료 질의 향상에 따라 일반 양돈농가에서도 30일령 이유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선진 양돈국과 국내의 일부 발전된 양돈장에서는 21~23일령에 이유시켜서 30일령에 이유한 돼지와 같이 건강하게 육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빠른 이유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일찍 이유시켰다고 자랑하는 분들도 있지만, 양돈이란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 것이므로 최대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시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젖먹이 새끼돼지를 30일 이전에 이유시키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모돈의 비유량을 분석해 보면 분만후 20일부터 30일 사이에 유량이 가장 많으며, 새끼들은 이 시기에 어미 젖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이유시키면 가장 유리한 포유기회를 뺏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묽고 유연한 어미젖을 먹다가 가루먹이를 소화하는 것은 새끼돼지에게 많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기이유를 시키려면 처음부터 사료의 종류, 돈사시설, 사양기술, 질병위생 등을 고려하여 면밀한 이유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기이유용 사료는 탈지분유가 적어도 40% 이상이고 설탕, 비타민, 무기질, 항생제 등을 균형있게 배합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새끼돼지 보온실은 이유할 때는 24~25°C를 유지해 주고 체중이 증가함에 따라 온도를 조금씩 낮추어 주어 체중이 45kg일 때 20°C가 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새끼돼지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료에 비타민 C를 첨가해 주거나 청초사료를 급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자동급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돼지의 이유시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빠를수록 좋지만, 25일령 이전의 조기이유는 기술적인 발전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조기이유를 실시하면 모든의 번식회전률이 높아져 농가소득에 많은 보탬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경험 많은 양돈농가와 많은 토론을 하셔서 새로운 사양기술 습득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라며,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시길 바랍니다. <응답자 : 본회 홍보부 최승덕> \*

정확한 시세정보  
높은 지육율  
신속한 운반  
계류, 도축, 경매관리원  
친절한 판매상담  
시간, 경비 절약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68-10  
☎ 294-5060 (02) 982-8043 성남 48-3216

## 빈혈이 있어서야...

생리적 빈혈은 자돈의 성장과정에서 꼭 넘어야 할 산입니다. 이 산을 넘지 못하면 성장이 지연되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약화되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페록신** 주

**페록신** 주

**페록신** 주

로 해결하십시오. 단 한 번 1ml 주사로 끝납니다.

는 생체이용율이 우수한 철분주사제입니다.

는 비타민 B<sub>12</sub>도 함유, 혈액형성을 촉진합니다.

**국립수의약품주식회사**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31-29 ☎ 582-9181 / 5  
본사 · 공장 : 경기도 용인군 기흥면 구길리 227 ☎ 수원 ⑧ 3423/4